

이재명 대선 공약 ‘해남 데이터센터 구축’ 공방 확산

이준석 “부산이 최적지” 주장에 이재명 TV토론서 “충분히 가능” 김영록 지사 “이해도 부족” 참전

해남에 재생에너지 기반 세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둔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최적지’ 설전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 TV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가세,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19일 전남도와 지역 정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해남에 세계 최대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전남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전남도와 해남군, 미국 투자그룹 ‘스톡 팜 로드’(Stock Farm Road·SFR) 자회사인 퍼힐스(FIR HILLS), 국내 최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시행사 간 체결한 15조원 규모의 4차 투자협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 기반 개발사업으로 자금은 빅테크와 투자자의 펀드레이징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준석 후보는 지난 16일 공약 설명자료에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제철소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산업화를 이끌었다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제철소-고속도로는 데이터센터”라며 “물, 전기, 케이블 등 3대 요소를 다 갖춘 부산이 최적지다”고 밝혔다.

원전과 가까운 전력자립률이 200%가 넘고 데이터수요가 높은 일본과 가

깝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해남에는 해저케이블이 들어가지 않는다.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망상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첫 TV토론회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표준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기저전력을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술발전과 분산형 전원 구조를 전제로 한 새로운 산업전략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대규모 투자협약을 이끌었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전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전력계통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서 비롯됐고 재생에너지를 문제 삼는 것도 합리적 에너지믹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해남에 5GW의 태양광 발전원을 준비 중으로 전국 유일하게 한전공급 단가 이하로 데이터센터에 태양광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AI데이터센터의 이상적인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원전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며 “해남은 당장 착공 가능한 100만평 이상의 부지와 용수시설, 통신 케이블 등의 적기 공급 가능해 구급, 아마존 같은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장소다”고 거듭 역설했다.

TV토론회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문제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이재명 비판에 가세했고, 이



강기정 시장, 중소·청년창업기업 투표 참여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19일 동구 동명동 I-PLEX(아이플렉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소·청년창업기업 투표참여 약속’ 행사에 참석, 아이플렉스 입주 기업 대표들과 근로자 투표권 보장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재명 후보는 ‘원전 안전’을 담보로 AI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원전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믹스에 방점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준석 후보 사이에서 때어진 ‘진중론 공방’까지 벌어졌다.

SNS도 달궜다. 한 전문가는 네덜란드를 예로 들며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함에도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을 활용해 전기를 일으키고 이를 소위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과 과학’의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펴면 전기료는 2배 이상 상승하고 제조업은 비싼 전기료로 원가 상승 탓에 초토화될 것”이라며 김 후보의 원자로 증설을 옹호했다.

정근산 기자

“졸속 후보 민낯” vs “불안·공포 지수만 높여”

민주·국힘, TV토론 ‘아전인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 전남 열린 중앙선관위원회 주관 1차 TV토론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 TV 토론회를 통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TV토론은 ‘왜 이재명인가’를 다시 한번 입증한 시간이었다”며 “이 후보는 준비된 후보인 반면, 김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후보의 민낯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

서 “김 후보는 토론에서 준비 안 된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시종일관 윤석열을 빼다 닮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며 역시 ‘윤석열의 대리인’임을 확인시켜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후보는 어제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토론에 임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라며 “이 후보는 시종일관 곤란한 질문을 피하는 모습과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겠다는 발언을 해 실망스럽다는 발언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TV토론회는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걱정·공포 지수만 더 높여줬다”며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철학에 굳건한 김 후보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어제 TV

토론은 양자 대결 구도에서 김문수의 완승이었다”고 자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시장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남 TV토론과 관련해 “나는 이재명 후보가 낸 주장을 그대로 옮기며 반박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극단적이라 주장한다면 본인의 정치적 주장이 극단적인 게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할 것 같다”며 “극단이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에게 ‘그래서 어쩌라고요’ 식의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 상당한 수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어쩌라고요’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 쪽이 아닌 쪽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전남 대표 수산물 김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

해농, 뉴저지 식품유통회사 140억 규모 수출 협약 체결

전남지역 대표 수산물기업인 해농이 미국 뉴저지의 식품유통회사인 카네야마(KANEYAMA USA)와 1,000만 달러(한화 140억원) 규모의 수출과 미국시장 공동 진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 대형 유통망인 월마트(Walmart USA)를 비롯한 현지 유통 채널을 통해 전남 김 제품의 미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고품질 마른 김, 조미김 등 해조류 가공품의 안정적 공급과 현지 유통 활성화가 핵심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특히 월마트 등 대형 유통망 진입, 전남 김의 글로벌 수출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해농이 생산하는 고품질 마른김, 조미김, 김밥김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납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농은 품질이 보장된 김 제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카네야마는 미국 내 판로 개척과 마케팅, 유통을 담당하며 제품 포장, 통관, 물류 등도 공동 협의체를 통해 긴밀하게 조율할 계획이다.

카네야마는 월마트, 크로거(Kroger) 등 미국 대형 유통망에 다양한 아시아푸드 제품을 공급하는 프리미엄 유통기업이다. 소피 어워드 수상(김밥김 부문 1위) 이력을 가진 유망 바이어다.

해농은 2004년 창립 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개선으로 지난해 연매출 705억원,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한 전남 대표 수산물 수출기업이다. 나주와 목포 사업장에서 총 136명의 인력

을 고용하고 있다. 이중 4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김밥김, 조미김, 도시락김, 김가루 등 다양한 제품군을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김 수출 확대를 위해 농수산식품 수출 직불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김 수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검사비, 해외 판촉 지원 등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해 확대하고 있다.

올해 4월 현재 전남산 김 수출은 전년보다 17.3% 증가한 2억7,500만 달러(한화 3,778억원)를 기록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19일 “김 산업은 전남 수산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이번 협약은 전남 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민주 ‘지귀연 판사 접대의혹’ 사진 공개

“내란 재판 맡길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형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형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유형업소 출입 관련 제보를 받고 직접 현장을 확인

해 내부를 촬영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룩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룩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확보했다”며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내부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고, 제공되는 음료 종류까지 같았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해당 업소의 내부 홀로 추정되는 사진도 추가로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사진을 소개하며 “보다 시피 여성 종업원과 남성이 한 테이블에 동석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이런 곳”이라고 말했다. 또 “저희가 (지 부장판사의)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이라며 “특정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추가로 확인되는 대로 추가 통보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사진이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한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BALLISTIC R&D 연구소를 중심으로 골프 클럽, 기어 역학적 매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골퍼를 위한 최상의 클럽을 선보였으며 이 특별한 결과물이 바로 BALLISTIC입니다.

발리스틱골프 OPEN

클럽 · 어패럴 · 악세사리

발리스틱골프 광주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골드메디타워 1F
062 · 716 · 3040